

광주시 127억·전남도 68억 '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민생안정대책 발표...집합금지 소상공인 대상, 유흥업소 첫 지원 전남도,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화훼농가·여행업자·예술인 등

광주시가 설 명절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과 상인에게 127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7개 분야 업종 및 계층에 당사자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씩 모두 68억원을 설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비정규직에게는 1인당 150만원, 108개 실내 집단 운동 체육시설과 20개 풋살장은 1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여행업체 434곳에 각각 150만원, 돌잔치 전문 업소에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3만1500여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2020년 12월 24~2021년 1월 31)가 내려진 유흥업소 1192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유흥업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11차례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103만5000여명에게 2289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금액까지 더하면 지원 규모는 8860억원에 이른다.

이용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와 취약계층을 5개 구청과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또 종교시설 2100곳에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신천지에속교,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 안디옥 교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제외다.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는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운수 종사자 1인당 50만원, 어린이집 통학 버스 기사 150명과 법인 택시 기사 27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활동가 2000여명에게 30만원씩, 문화예술 공연·행사 관련 업체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 19 제3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의 초점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종 및 계층에 맞춰져 있다. 대상자와 소요 예산은 1만3616명, 68억원으로 전액 전남도비로 마련한다.

전통시장 상인 가운데 미등록 사업자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졸업식 등 행사·모임 급감으로 피해가 극심한 화훼농가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급액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 1인당 50만원이다.

당사자가 각 시군에 신청하면 전남도가 설 전에 직접 지급하는 형식이다. 각 시군은 이와 별도로 재정 여건 등 실정에 맞게 별도의 보편적 또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지원 총액, 지급 인원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20억원, 4000여명 ▲전세버스 기사 11억7000만원, 2340명 ▲법인택시 기사 12억 5100만원, 2501명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11억원, 2200명 ▲절화류(折花類) 화훼농가 11억원, 250명 ▲여행업자 2억6300만원, 525명 ▲예술인(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9억원, 1800명이다.

신청기간은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와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여행업의 경우 3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예술인은 3일부터 26일까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피해가 큰 취약분야 사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다가오는 설 명절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타지에서 방문하는 가족, 친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광주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광주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일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명칭, 소재지,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검토, 정관, 임원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해산·운영 등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책임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의료원 설립·운영 경비, 무상 진료 등의 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다. 환자의 인권 보호와 위협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의료원의 수술실에 영상 장비를 설치하게 했다. /최진일 기자 cki@kwangju.co.kr

본사인사

▲김계중 (동부투자본부 국공주제) : 의원면직 (1월 31일자)

국방백서에 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수출규제 등 불편한 한일관계 반영...북 '적' 포괄적 개념 유지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문재민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일본, '이웃국가' 기술에 그쳐...중국과 사드 갈등은 삭제=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약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는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것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나란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적' 포괄적 개념 이번에도 유지...부적절 비판도=이번 백서에는 직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정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동하기 위한 마지막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전략권 전환 가속화' 추가하고 '방위역량 조기 확충' 강조=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전략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략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권 조기 전환' 목표는 이전 백서에서도 기술된 것이지만, '가속화'라는 표현이 두 차례 추가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연합검증평가 자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전략권 전환 추진 속도를 몰라싸고 한미 간 '미세한 온도차'가 잇달아 감지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을 반영한다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순천 명물 '낙안배' 몽골에 첫 수출

전남농기원 "글로벌 농식품 판매 전문가 양성과정 결실"

순천의 명물 '낙안배'가 몽골인의 식탁에 오른다. 지난 2018년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길에 올랐던 낙안배는 지난 1월 몽골에 처음 수출됐다.

2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수출의 주인공은 고품질 배를 재배하고 있는 덕천농장 김순남 대표부부(사진)이다. 김 대표는 순천 시 낙안면 4ha(약 1만2000평) 규모 과수원에서 배와 매실, 감 등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표시등록, GAP 우수농산물인증, 대한민국 스타마크 인증 등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동남아시아로 낙안배를 수출하고 있다.



무역실무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게 됐다.

낙안배의 몽골 수출은 수출업체인 잠언코리아가 배를 맞은 것이 계기가 됐다. 업체 측이 아삭하고 달콤한 낙안배에 반해 수출품목으로 발굴하고 관련 준비를 도와 15kg 60박스, 7.5kg 24박스 등 약 1t을 이번엔 몽골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홈페이지, 블로그를 시작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유통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그러던 중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019년 전남농업기술원 주관 글로벌 농식품 판매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수출

이반 수출액은 672만원가량으로 양은 적지만 코로나 19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몽골 시장을 새로 개척해 의미가 크다고 전남 농기원은 설명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덕현 농업정보팀장은 "글로벌 농식품 판매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에서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민식이법이란 무엇인가요?

- 2020년 3월 25일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
- 운전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교통사고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사망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 1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과 법규준수 잊지 마세요.”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위치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광양동 산48-6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2,254	10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용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용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용여부
광양동 조항리 372 일원	계획관리지역	생산업지역	83,425	80% 이하	
옥룡면 동리리 386 일원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60,836	80% 이하	
다압면 굴천리 650 일원	계획관리지역	생산업지역	50,994	80% 이하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결정(안)은 광양시청(시청 3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도면 : 게재생략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21. 2. 3. ~ 2021. 2. 17(14일간)
나. 장소 : 광양시청(도시계획과) 및 광양동사무소·봉곡면사무소·옥룡면사무소·다압면사무소

4. 의견제출 방법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계획과 ☎ 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아래의 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변환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6조 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피상속인의 표시

피상속인	이화순	이화녀
생년월일	510206	331020
사건번호	2020-나598	2020-나599
등록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기초지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전남 무안군 삼정읍 유곡길 101
사망일시	2018. 12. 14	2020. 06. 25

2. 위 각 피상속인의 일반상속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그 재권 또는 상속을 2021년 4월 3일까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재권 또는 상속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표시
- 상속재산관리인 : 변호사 이상열
- 주소 및 신고처 : 목포시 영의로 22 302호 (유안동, 새광명빌딩) ☎ 0610242-3000
2021년 2월 3일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이상열

2월 7일(일)
▲광주K시안학회 2월 7일(일) 강원도, 평창군, 흥천군 & 계방산 1577.4m & 한강지맥산행, 엄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역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수주차장 05:30 ※ 다 음카페 광주K시안학회 ☎ 010 774 692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5만5천원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 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건너면 동광주빌딩 내